“한국불교 원더풀!”

세계 영상동호인들 봉은사서 템플라이프

봉은사 ‘템플라이프’에 참여한 UNICA 회원들이 교육국장 선업 스님의 지도로 참선을 체험해 보고 있다.

8월 26일부터 열리는 대구세계영화제 참석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세계영상동호인 300여명이 봉은사를 찾았다.

23일 서울 봉은사(주지 원혜) ‘템플라이프’에 참가한 25개국 300여명의 영상동호인들은 “원더풀!”을 연발하며 한국불교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었다.

이들은 봉은사 교육국장 선업 스님이 영어로 진행하는 ‘참나를 찾는 참선’을 접하며 간화선을 체험하고, 다도예법을 배우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원혜 스님은 “부처님께서 ‘우주만물은 서로 의존해 관계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셨듯 세계 예술인과 봉은사가 만난 것도 오래 전 정해진 소중한 인연일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문화와 여러분의 문화와 예술을 잇는 공존의 다리를 놓아 달라”고 당부했다.

UNICA(세계비상업영화기구)의 막스 핸실 회장은 “짧은 시간이나마 명상과 사찰체험을 통해 한국불교를 알 수 있도록 배려해 준 봉은사에 감사한다”며 “도심 속에 전통사찰이 위치해 있어 놀라웠다”고 말했다.

개인적으로 불교에 깊이 매료돼 3년 전 불교에 관한 단편영화를 만들고, 3주간 달라이 라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촬영하기도 했다는 막스 회장은 “한국불교는 놀랍고 판타스틱하며 불자들이 친절하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산하단체인 UNICA는 아마추어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순수 영상예술을 추구하는 비전문영화인단체로, 8월 26일~9월 2일 대구와 경주에서 ‘UNICA 총회 및 세계영화제’를 개최한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용주사 인근 골프장 증축 논란

화성 용주사 인근에 골프연습장이 대규모로 증축되고 있어 수행환경이 침해 되고 있다.

용주사에 따르면, 국방부 소유 골프장인 남수원체력단련장을 운영하던 군인공제회는 38억원을 들여 지난해 11월 골프장내 연습장 증축 공사를 시작했다. 공사는 7개의 기존 타석을 44개로 늘리고 37m 높이의 철골 구조물도 45m로 높여 19개를 설치,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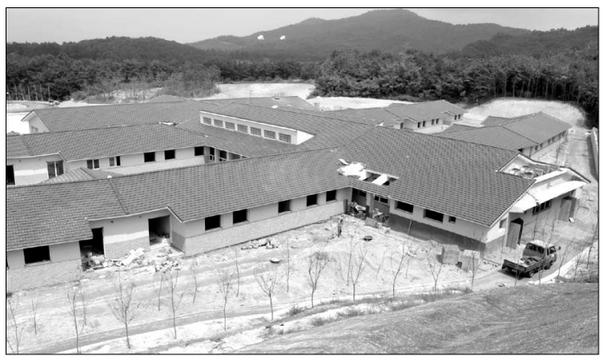
높은 철골 구조물이 들어서자 비로소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용주사는 “골프연습장이 국보인 용주사 범종과의 거리가 불과 300여m인데다 철골구조물을 40m 이상 높이는 바람에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19일 군인공제회측에 공사 중단과 시설물 원상복구를 요구했다.

이후 24일에는 용주사 스님과 신도 300여 명이 공사중단 등을 촉구하며 골프연습장 앞에서 시위을 벌인데 이어 조계종 총무원을 통해 국방부, 문화재청, 경기도청, 화성시청 등에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로 했다. **박봉영 기자**

‘소쩍새’ 이천에 새 둥지 마련

승가원자비복지타운 9월 7일 준공 법회

진료실 등 최신시설에 200명 생활 가능



9월 7일 준공식을 여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자비복지타운.

막바지 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8월 23일. 경기도 이천시의 야산 3만평에 세워진 사회복지법인 승가원자비복지타운(원장 묘전)은 9월에 열릴 준공법회를 앞두고 현재 시설 마무리 작업이 한창이다.

당초 계획했던 9천여 평 규모의 승가원자비복지타운은 향후 4년간 단계적으로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그 중 1단계 사업인 생활관이 현재 완공된 상태다.

정신지체장애인 150여명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등 총 200여명을 수용할 수 있는 1200평 면적의 생활관을 완공한 승가원은 9월 말부터 원주 소쩍새마을 장애인들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원장 묘전 스님과 전문자격증을 갖춘 생활지도원 69명도 승가원자비복지타운에 함께 상주하며 24시간 장애인을 돌보게 된다.

모든 생활관 건물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1층으로만 지어졌으며 문을 열면 복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야외로 통하도록 설계해 최대한의 활동성을 보장했다. 아파트형 단독주거형태를 띠고 있는 모든 방사에는 2개 이상의 방과 거실, 화장실 2개, 욕실 1개가 딸려 있으며 개별 냉난방 시설을 구비해 장애인들이 큰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원주 소쩍새마을 가족 중 4쌍의 장애인 부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부방사 6채를 따로 마련했다. 부부방사는 2인용 방에 화장실, 욕실이 딸려 있어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생활관 사무동 안에는 사무실, 상황실, 원장실, 치과진료실, 간호사실, 상담실, 물리치료실 등이 들어선다.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는 곳곳에서 발견된다. 장애인들의 동선을 고려해 최대한 짧은 거리로 이동하도록 사무실과 강당, 식당을 생활관 중앙에 일직선으로 배치한 건물 구조, 휠체어가 쉽게 드나들 수 있도록 일체의 문턱이 없는 문 등.

물론 해결돼야 할 문제점들도 존재한다. 인터넷 LAN선이 들어오지 않는 곳이라 하루 빨리 설치작업을 진행해야 할 상황이다.

원장 묘전 스님은 “소쩍새마을이 미인가시설 시대를 닫고 승가원자비복지타운으로 거듭나게 된다”며 “불자들의 모연금으로 소쩍새마을 인수 10년 만에 이뤄진 숙원 사업이라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준공법회는 9월 7일 오후 3시 봉행된다. **글 · 사진/이천= 이은비 기자**

“전통 사찰음식 전문가 양성해야”

대중화 방안 세미나

“전통 사찰음식 조리 전수자를 보호 · 육성하고 일반인을 위한 교육공간을 확충해야 한다. 일반인들의 구매의사가 높은 식품을 조사해 상품화하는 방안도 연구되어야 한다.”(동국대 가정교육과 이심열 교수)

“‘사찰음식협의체’를 구성하고 종단 차원의 ‘사찰음식문화 큰잔치’ 같은 행사를 개최해 사찰음식 알리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이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사찰음식의 우수성 및 대중화 방안’ 세미나가 8월 2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는 150여 명이 참석해 사찰음식의 우수성을 재확인하고 대중화 · 산업화 방안을 논의했다.

총무원장 지관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최근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종단 차원에서 사찰음식을 정리하고 집대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앞으로 승 · 재가 교육을 통해 사찰음식의 정신과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문화관광부의 한브랜드사업과 한국불교 세계화 사업 등에 동참함으로써 사찰음식을 세계에 알리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한국전통사찰음식문화연구소장 적문 스님이 ‘사찰음식의 변천과정과 정신’을, 선재사찰음식연구원장 선재 스님이 ‘사찰음식의 특성 및 우수성’을, 동국대 이심열 교수(가정교육과)가 ‘사찰음식의 대중화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세미나에서 특히 눈길을 끈 것은 동국대 가정교육과 설문조사 결과.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응답자의 40%가 사찰음식을 건강식으로 생각하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기혼일수록 사찰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들은 사찰음식 중 부식류와 김치 · 장류 · 한과 등을 대중화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여수령 기자**

현등사 사리구 소송 2 라운드

조계종 추진위 발족 … 법원항의 방문 · 서명운동

“삼성문화재단이 점유하고 있는 현등사 사리는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와야 합니다.”

조계종 총무원과 현등사는 8월 23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에서 ‘현등사사리 제자리 찾기 추진위원회(공동위원장 철안 · 원담, 이하 추진위)’를 발족했다.

봉선사 주지 철안 스님은 “7월 20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현등사 사리구 반환소송 1심 판결에서 ‘현등사의 동일성 부정’을 이유로 피고인 삼성문화재단의 손을 들어 준 것은 대한불교조계종의 법통을 부정한 편향된 판결”이라며 “소송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은 물론 삼성문화재단의 현등사 사리 소유가 잘못됐음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추진위는 서울지방법원을 항의 방문하는 것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국 사찰에 항의 현수막 설치 △삼성 리움미술관 사리친견 법회 개최 △천만불자 서명운동 △중앙종회 및 본사주지회의 항의성명 채택 등의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노병철 기자**

경주 사천왕사 익랑지 발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소장 윤근일)는 경주 사천왕사지(사적 제8호) 발굴조사 중 4월 25일 익랑지(翼廊址: 날개처럼 펼쳐진 회랑)를 발견했다고 8월 24일 밝혔다.

이번에 발견된 익랑은 금당 좌우에서 동회랑과 서회랑에 직각으로 이어지는 동서 방향으로 놓인 회랑으로 현재 사천왕사지의 서익랑지는 1칸×9칸으로 구성돼 있다. 주칸 거리는 2.6~2.7m로 모두 등간격이며, 동서 길이는 21.0~22.4m이다. 서익랑은 서회랑과 직교하여 동쪽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동쪽 끝은 금당 서측면 중앙에 닿아 있다.

이와 같은 익랑지의 구조는 1979년 발굴 · 조사됐던 경주 감은사 익랑과 거의 동일한 배치를 보이고 있어 흥미롭다. **노병철 기자**

정토회, 北 수재민 지원 활발

250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수재민을 돕기 위해 불교수행단체인 정토회(지도법사 법륜)의 활동이 눈길을 끈다.

정토회는 8월 3일 인천항에서 밀가루, 라면, 의류, 양초 등 1억2000만원 상당의 1차 구호물품을 보낸데 이어 4일, 9일, 14 · 16일 차례로 인천과 단둥에서 구호물품을 보냈다. 24일에는 밀가루 500톤과 의약품 등 2억4000만원 상당의 5차 구호물품을 조선해외동포원호위원회를 통해 북한 수재민들에게 지원했다. 5차 구호품은 14대의 트럭, 28개의 컨테이너에 실려 가장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진 평남 양덕군, 신양군, 성천군 등으로 보내진다.

한국JTS측은 “북한 이재민들에게 남녘동포의 자비와 온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정성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후원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예금주 한국JTS **박봉영 기자**

日, 北 종교인 비자발급 거부

일본 정부가 8월 26~29일 교토에서 열리는 세계종교인평화회의(WCRP) 총회에 참가하려던 북한 종교인 대표단의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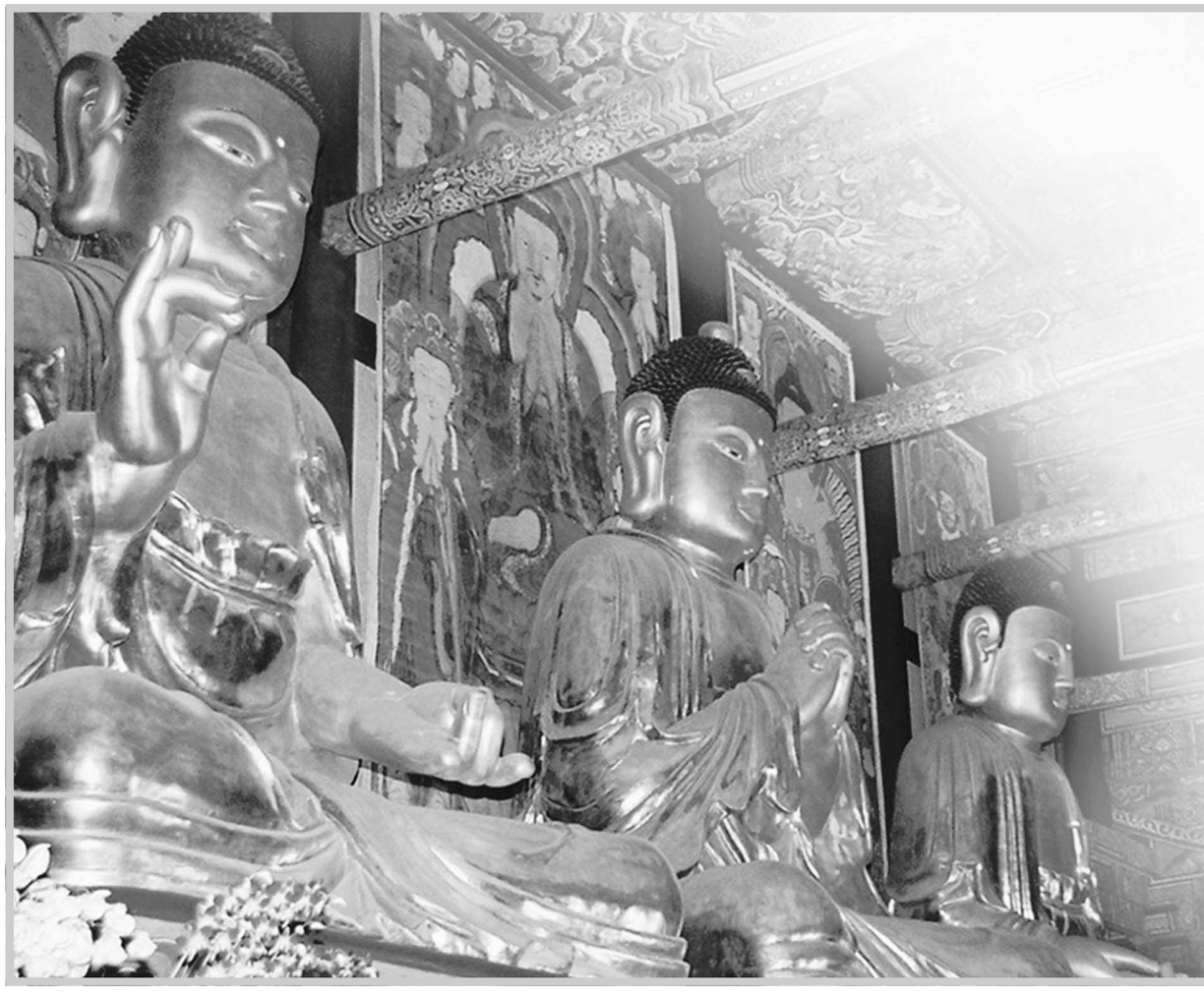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는 8월 24일 “일본 정부가 북한 종교인들의 입국을 거부한 것은 순수한 종교행사를 정치 이념적 보복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WCRP 대표들과 함께 일본 정부에 정확한 경위 해명과 사과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KCRP는 성명에서 “일본정부의 조치는 세계종교인들의 평화 의지마저 부끄럽게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라며 “이번 교토 총회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자 했던 한국종교계의 기대를 좌절시켜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봉영 기자**

연화원 호스피스 교육

사회복지법인 연화원(이사장 해성)이 9월 22일부터 호스피스 간병 및 케어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수화, 사회복지개론, 케이개론 및 실습교육을 필수로 마쳐야 하며 상담심리, 호스피스 윤리, 유서작성 및 임사체험을 선택과목으로 수강할 수 있다. 필수교육 이수 후에는 수화기초반 수료증 자격증과 케어복지사 2급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02)2202-5831 **이은비 기자**



“천년의 향기를 만난다”

보물 제 915호 대웅보전 복원불사를 원만회향하고 보물 제 1360호인 국내 최대 소조불상인 대웅보전 삼존대불 복장봉안 및 개금불사를 봉행합니다.

법주사 대웅보전 삼존대불
개금 · 복장 불사 회향 대법회

- 일 시 : 불기 2550년 9월 12일 (화요일)
- 장 소 : 법주사 대웅보전

1부. 삼존불 개금 · 복장 불사 점안식 - 오전 9시 30분
(삼존불 후불탱화 · 신중탱화 · 지장탱화)
2부. 삼존불 개금 · 복장 불사 점안 대법회 -오전 10시 30분
3부. 보살계 수계식 - 오후 1시 30분
4부. 10만등 점등식 - 오후 7시

▶ 문의 • 종무소 : 043-543-3615 • 원주실 : 043-543-4755